

아베의 진짜 속셈은... 美와 손잡고 '반도체 코리아' 압박

日, 반도체산업 재육성 준비태세 수출규제 전 韓 반도체 정밀 분석 美 마이크론, 히로시마 공장 확대 中·대만 등 주변국들도 기회 엿봐

일본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일본이 반도체 산업 재육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힘을 싣고 있다는 우려적인 분석도 나온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19일 포토투리스트 수출을 허가했다. JSR이 수출하고 삼성전자가 수입하는 내용이다.

수량은 삼성전자가 EUV 공정에서 약 6개월을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이미 3개월여 분량을 비축해두고 있었던 만큼, 시스템 반도체 생산도 앞으로 9개월간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일단 21일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둔 조처라는 추측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EUV 라인 전경.

/삼성전자

힘이 실린다.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수출규제 조치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일본 측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도 조용히 사태를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단, 수급 불안정성은 여전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포토투리스트가 수출규제 품목 중 가장 명분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던 데다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방침도 유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토투리스트를 제외한 품목은 여전히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

황으로 전해졌다.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도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수출 규제에 앞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정밀 분석해 공격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개입된 정황은 '반도체 코리아'가 자칫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전해준다.

마이크론이 핵심이다.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히로시마 공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본 엘피다를 인수하면서 확보한 곳으로, 10나노대 D램 생산을 늘릴 것으로 추정된다.

낸드플래시 업체인 도시바도 재기를 시작했다. 정전사고로 멈췄던 공장을 정상화하고 기타카미에 새 공장 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SK하이닉스에 팔았던 주식을 다시 회수한다는 계획도 진행 중이라는 전언이다.

일본 IT 업계는 메모리 반도체 상당 수를 마이크론과 도시바 등에서 공급해

왔던 만큼, 일본 반도체 부활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는 일본 소니가 수출 규제로 수해를 볼 수 있다. 이미 지센서 시장에서 빠르게 추격하던 삼성전자를 밀어낼 수 있어서다.

대만 역시 일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파운드리 시장 압도적인 1위였던 TSMC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중국도 우리편은 아니다. 국내 메모리 산업이 주춤하면서 중국 반도체 업체들도 포기했던 메모리반도체 양산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미국 인텔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 코리아가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그나마 삼성전자는 미국 AMD와 퀄컴, 엔비디아 등과 오랜 관계를 맺어왔고, 최근에는 중국 화웨이와도 이미 지센서를 개발한 바 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협력 관계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김재용기자 juk@metroseoul.co.kr

일본 수출규제 피해 中 中小 企業 돕자 고려대도 산업생태계 적극 지원

관련 산업체와 협력 연구 강화 캠퍼스, 혁신 플랫폼으로 개방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돕기 위한 대학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고려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를 적극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생태계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캠퍼스를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고려대는 이를 위해 이달 내로 연구부총장을 중심으로 '산업지원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공학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경영컨설팅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해법 제시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려대 산업지원 특별위원회는 공학 관련 연구소 이외에 교내 기업경영연구원, 아세아문제연구소,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글로벌 일본연구원 등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우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체와의 협력연구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고려대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초학제적 캠퍼스로 변화해가는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 혁신도 수행할 방침이다.

세부 전략으로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 산업체 애로기술 및 수요기술 지원 확대 ▲ 노하우 및 기술이전 전방위 지원 ▲ 공동 R&BD 기획 및 상용화 ▲ 잠재력 있는 협력 기업 발굴 지원 등 기술개발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 통상, 조세, 수입국다변화 등 경영컨설팅 ▲ 고려대-와세다대학 공동위원회 제언 ▲ 계약학과를 통한

기업-대학 간 협력 강화 ▲ 기업과 대학 공동 벤처 창업 활성화 등 산업체 애로사항에 대해 대학내 모든 역량을 모아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그동안 전담부서를 두고 산업체와 연구진을 연결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나,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산학협력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위원회에서 우선 신속하게 대처해 지원한다.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 재산권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대학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초연구력이 산업체 응용연구로 연결되도록 국책연구소나 산업체와 함께 국제적 협력 채널 구축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과대 화학공학 연구정보센터와 열역학물성 데이터센터가 중심이 돼 화학제조업체인 머크(Merk)사와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전자 부품 제조에 필요한 화학소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일본의 자율준수규정(ICP)을 인증받은 기업으로 거래선을 변경하거나 일본 이외의 기업을 찾을 때도 고려대 각 분야 전문가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한다.

고려대는 기업 기술개발 지원 외에도 양국이 경제·역사적 갈등을 해결하는데 대학의 학술적인 역할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고려대는 장기적으로 산업생태계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함께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계약학과를 중심으로 기업과 대학의 혁신 플랫폼을 만들고 나아가 캠퍼스 전체가 지역과 산업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중기부, 여성기업에 1100억 규모 보증 지원

우리은행과 '자상한 기업' MOU 매칭펀드 50억 투자,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은행과 손잡고 여성기업인의 창업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중기부와 우리은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상상과 공존을 위한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부터 중기부가 대·중소기업 상생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자발적 상생협력)한 기업' 시리즈의 다섯번째 작품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1100억원 규모의 여성경제인 사업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금을 지급을 돕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와 기술보증기금에 약 70억원의 특별 출연금을 지급한다. 신보중앙회와 기보는 출연금을 바탕으로 각각 100억원, 1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성인증기업, 여성벤처기업, 여성이노비즈 인증기업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용 금융상품도 출시한다. 우리은행은 여성기업에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금리를 최대 1.2%까지 인하해주는 여성경제인 전용 수신·여신 우대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



2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자상한 기업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왼쪽부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도도 10% 추가된다.

아울러 여성기업대상 매칭펀드에도 최대 50억원 투자한다. 여성스타트업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창업경진대회 입상자에게 우리은행 혁신금융투자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도 준다.

여성경영인의 컨설팅도 돕는다. 우리은행은 경영전략·오퍼레이션(운영)·재무·세무 관련 컨설팅 무료로 제공해 여성기업의 컨설팅 시스템도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룹사인 우리은행 앵커투자자가 3000억원을 출자해 5년간 2조1000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한다. 아울러 금융권 최초 핀테크 특화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한다.

혁신·창업·사회적기업에는 올해부터 5년간 31조1000억원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에도 6억원 출자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3조원의 금융지원과 무료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의 금융혁신 역량과 여성경제인의 잠재력이 융합돼 '여성기업의 성공시대'를 여는 계기로 만들 예정이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자상한 기업과 중소기업계의 연결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우리은행이 여성경제인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명으로 이뤄진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우리은행이 은행권 중에서 2년 연속 여성고용 1위를 기록하는 등 여성경제에도 힘쓰고 있어 우리은행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자상한 기업을 맺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체결에 앞서 박영선 장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둘러봤다. 아울러 여성기업의 실질적 컨설팅 강화를 위해 '여경협 15개 지회장과 우리은행 15개 지역 영업본부장'의 매칭 행사도 진행됐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삼성전자, 도쿄서 파운드리 포럼 강행

삼성전자가 일본 수출규제에도 현지에 EUV 공정 파운드리 기술력을 과시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4일 도쿄에서 열리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19 재팬'을 준비 중이다.

당초 한일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취소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예

정대로 강행하게 됐다는 얘기가.

파운드리포럼은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파운드리 사업 로드맵과 신기술을 소개하는 행사다. 올해에는 EUV를 이용한 7나노와 5나노 양산, 이후 극미세 공정 계획까지 다루고 있다. 5G 이동통신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등 솔루션도 선보인다.

정성승 파운드리사업부 사장과 마케팅팀장 이상현 상무 등도 참석한다. 현지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애널리스트 등이 삼성전자 기술력을 직접 듣게 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고객사들과 약속을 우선시함과 동시에, 정치적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행보를 보인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